

영·한 번역에서의 주어선택과 행위자성

장 영 준
(중앙대)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김은일·김명애·정연창(2009, 이하 김은일 외로 약칭)의 논문 “유생성이 한영번역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은일(1998, 2000)과 김은일 외(23)는 유생성이 한국어의 주어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가령 김은일 외(24)의 다음 예문을 보자.

- (1) a. This ticket admits one person.
b. *이 표는 한 사람만 입장시킨다.

위 (1)에서 영어 원문은 무생물 주어를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 번역문은 무생물을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영어가 무생물 주어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데 비해, 한국어는 무생물을 타동

사 구문의 주어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타동사 구문에서 무생물 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특성은 널리 알려져 왔다. 김은일 외(24)는 이러한 특성이 영·한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유생성이 영어와 한국어라는 매우 이질적인 언어 사이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되고 처리되는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연구자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은일 외에서 다룬 자료를 면밀히 재검토해본 결과, 우리는 영·한 번역문의 주어 결정에 있어서 유생성이 아니라 동작주와 같은 의미역이 더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음 절 이하에서 우리는 유생성과 더불어 동작주와 같은 다른 많은 요소들이 번역문의 주어의 선택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김은일 외(2009)의 요약과 문제점

2.1 유생성과 행위자성

유생성(animacy)이란 생명의 유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생명(life) 혹은 정신(animus)을 가지는 동물이나 문학과 같은 장르에서 의인화된 무생물을 의미한다. 김은일 외(25)에서 언급한 것처럼, Croft(38)는 유생성이란 개념을 상보적 반의어로 보지 않고, 여러 등급을 가지는 일종의 위계로 보고 있다.

(2) 유생성 위계

- a. 인칭위계: 1, 2인칭 > 3인칭
- b. 명사구유형위계: 대명사 > 고유명사 > 보통명사
- c. (진정한) 유생성 위계: 인간 > 비인간 생물 > 무생물

(2c)에 의하면 유생성은 “인간>비인간 생물>무생물 과 같은 위계를 가진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상식에 어긋난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이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계적 구분은 특정한 언어 내에서의 문법적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김은일 외(26)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동물과 식물의 구분이 한국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 (3) a. 나는 철수에게/*에 물을 주었다. (인간)
- b. 나는 개에게/*에 물을 주었다. (동물)
- c. 나는 꽃*에게/에 물을 주었다. (식물)

(3)의 예문들이 보여주고 있다시피, 한국어에서는 인간 및 비인간 동물과 식물 즉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인간과 비인간 생물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2c)가 한국어 문법에서, 그리고 한국어 번역물의 분석에서 과연 필요한 유생성 위계인지는 일단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또 다른 개념은 행위자성(agentivity)이다. 행위자성이란 의도를 가지고 자기-조절적으로 행동을 하는 주체를 말한다. Givón(1993, 2001)은 행위자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행위자성은 사건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인 타동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 (4) 행위자성(agentivity): 전형적인 타동절의 주어는 의도적(volitional)으로 행동하는 행위자(agent)이다.

행위자의 의도성과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보자.

- (5) John broke his arm.

문장 (5)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John이 의도적으로 (가령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팔을 부러뜨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John이 행동주(agent)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John이 행동주가 아니라 경험주(experiencer)에 해당한다. (5)의 중의성은 다음과 같이 적절한 부사어구

를 추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 (6) a. John broke his arm on purpose.
 b. John broke his arm by accident.

피상적으로는 동일한 타동사 구문이라 하더라도 어떤 주어는 행위자성이 높고, 어떤 주어는 행위자성이 낮거나 없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3절에서 유생성과 행위자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영어와 같이 타동사 구문에서도 무생물 주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원천언어(source language)에서 한국어와 같이 무생물 주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목표언어(target language)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2 김은일 외(2009)의 요약과 문제점

김은일 외는 *Readers Digest* 영한 대역 80-85권(2006-2007) 총 6권에서 무생물 주어가 사용된 타동사 구문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토대로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한국어 번역문에서 생물주어가 무생물 주어보다 비율이 훨씬 높는데, 그것은 한국어에서 무생물 주어가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은 사건을 주도적으로 유발할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는 기계나 기관은 무생물이라도 주어로 유지되었다. 셋째, 타동사구문에서 목적어, 소유주, 전치사구에 인간 참여자가 나타나면 그 인간 참여자가 주어로 선택된다. 넷째, 무생물 목적어를 지닌 무생물 주어 구문은 타동성이 낮은 경우 번역문에서 주어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타동성이 높을 때에는 목적어가 번역문에서 주어로 선택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결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볼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무생물 주어가 사용된 타동사 구문은 모두 52개였고 이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거나 유지되었다 (김은일 외 28)의 [표1]).

- (7) 주어 유지/변경에 있어서 생물주어와 무생물주어의 비교

	생물주어	무생물주어
주어유지	5개(96.2%)	29개(55.8%)
주어변경	2개(3.8%)	23개(44.2%)
합계	52개(100%)	52개(100%)

(7)의 표를 보면 생물주어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데 비해, 무생물 주어는 약 44%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경우를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다 (김은일 외 29-35).

- (8) 생물 주어가 유지된 경우
 - a. For every book report a child wrote, he received a raffle ticket.
 - b. 독후감을 쓸 때마다 아이는 경품 추첨권을 받았다. (RD 70)¹⁾
- (9) 생물 주어가 무생물 주어로 바뀐 경우
 - a.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students caught cheating get an XF for the course on their transcript.
 - b. 메릴랜드대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수강과목에 대해 XF라는 학점을 성적표에 기재한다. (RD 52)
- (10) 무생물 주어가 유지된 경우
 - a. Local TV stations began broadcasting Amber Alerts two years later.
 - b. 지방 TV방송국은 2년 뒤부터 앰버경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RD 32)
- (11) 무생물 주어가 생물 주어로 바뀐 경우
 - a. The Amber Alert's success has generated inquiries from police departments around the country and in Canada.
 - b. 앰버경고의 성공적인 결과가 알려지자 미국 전역과 캐나다의 각지 경찰당국이 문의하고 있다. (RD 36)

그런데 김은일 외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유생성이라는 개념보다는 행위자성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로 하자.

1) RD = Reader's Digest

첫 번째로, 생물 주어(9a)가 무생물 주어(9b)로 바뀌었다고 간주된 예문 (9)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위의 (9b)는 엄밀한 의미에서 “메릴랜드대학교에서는 이 통사적 주어가 아니라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이다. “기재하다 라는 동사의 주어는 학교의 당국자 혹은 선생님이 선택되었으며, 아래 (10)에서 보듯이 이를 복구해도 문장이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어가 틀림없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 메릴랜드대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부정행위를 한 수강과목에 대해 XF라는 학점을 성적표에 기재한다.

김은일 외(29)는 (9b)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인간 행위자가 암시되는 기관의 경우 주어(9a)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9b)의 주어가 “메릴랜드에서는 이 아니라 가령 “선생님들이 와 같은 것이 선택되었다고 판단하지만, 여기 인용한 이러한 관찰은 정확하게 옳은 것이라 판단하며, 오히려 유생성이 아니라 행위자성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김은일 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 행위자가 암시되는 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무생물 주어를 회피하기 위해 동사를 변경하고 다른 주어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1) a. Then January cast a shadow on little Sam's life.
b. 그러던 중 1월이 되어 어린 샘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 (RD (120))

예문 (11)과 관련하여, 그들은 무생물 주어인 *January*가 타동사 구문의 주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문에서는 부사구인 “1월이 되어 로 번역되고, 동사의 변경과 함께 새로운 주어 즉 “그림자 가 선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무생물 주어인 “그림자 가 주어(9a)로 선택되었는가? 물론 이 문장에는 생물 주어가 없기 때문에 생물주어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동일한 무생물 주어라면 어떤 이유로 기존의 무생물 주어를 무시하고 새로운 무생물 주어를 선택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생성은 이 번역문의 주어 선택

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3절에서 자세하게 제시되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11)에서 cast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은유적 표현으로 아무런 행위(activity)나 사건(event)이 없다. *January*는 단순히 시점을 밝혀 줄 뿐이고, *Sam's life*는 처소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장의 핵심적 의미역은 *a shadow*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미역(existential theta-role) 밖에 없다. 따라서 번역문에서는 존재의미역을 가지고 있는 *a shadow*가 주어로 선택되었고, 동사역시 “드리우다 라는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번역문은 유생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문장의 (의도된) 의미와 의미역을 고려할 때, 가장 두드러진 의미역이 주어로 선택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둘째, 김은일 외는 무생물 주어가 번역문에서 주어로 유지되는 경우를 “바람, 태양, 구름 등과 같은 자연은 무생물로서 의지를 지닐 수 없지만 사건을 야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실제로 사건을 주도할 수 있다 (30)고 하면서, 따라서 “자연도 비록 인간 행위자보다는 덜 전형적이지만 행위자로 역할을 하여 타동사의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다 (30)고 주장한다. 다음을 보자.

(12) a. The clouds had covered the sky completely, and the wind swept the blowing powder hard against me until it began to freeze to my face.

b. 구름은 이미 하늘을 완전히 가렸고, 바람에 날린 눈발이 사정없이 휘몰아쳐서 마침내 얼굴엔 눈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RD 83:12)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유생성이 아니라 행위자성이 번역문 주어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구름이 유생물이나 무생물이나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늘을 완전히 가리는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문에서 충분히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 예문에서 “눈발이 도 마찬가지이다.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사건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주어로 선택된 것이다.

김은일 외(31)는 기계와 기관이 모두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그대로 주어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들이 제시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13) 기계 주어가 번역문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

- a. At dusk 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helicopter spotted the Dykstras but could not get past the surrounding treetops to help them.
- b. 땅거미가 질 무렵 공안부소속 헬리콥터가 그들을 찾아냈지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높은 나무들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RD (52))²⁾

(14) 기관 주어가 번역문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

- a.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offered \$50,000...
- b. 캘리포니아 주정부 어류 및 조수관리국이 5만 달러를 내기로 하고... (RD (48))

위 (13-14)에서 보듯이, 기계나 기관은 무생물이지만, 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행위자를 암시하기 때문에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유지된 채 번역되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유생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야 하는가? 오히려 여기서 번역문의 주어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행위자가 암시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 즉 행위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기계나 기관이 인간 행위자를 암시한다는 주장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하지 않다. 가령 (13)의 헬리콥터가 무인헬리콥터라고 가정해보자. 컴퓨터 등 고도의 장비를 갖춘 무인 헬리콥터가 사람을 찾아냈을 경우에도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전히 무생물 주어 헬리콥터가 유지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든 암시하지 않든 상관없이 행위자성이 보장되면 무생물 주어는 우리말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김은일 외의 논리에 따르자면 다음 예문에서는 오히려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는 기관인 대학이 우리말 번역에서 그대로 주어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2) Dykstras를 단순히 대명사 “그들을”로 번역한 것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번역자의 무심함을 보여준다.

불구하고 오히려 부사구로 처리되고 있다 (김은일 외의 예문 16).

- (15) a. In recent years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reported a surge in plagiarism, unauthorized collusion on assignments and cheating on tests.
 b.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표절을 하거나, 과제물을 여럿이 함께 한다든지, 시험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RD (42))

위 (15)의 경우 필자들도 밝히고 있다시피, 번역자가 “많은 대학이...사례의 급증을 보고했다 처럼 번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필자들의 주장과 달리, 유생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책임소재나 정보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우리의 문화정서로 인하여 중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보고 를 주어로 선택했다고 판단한다.

이 문장이 만일 대학들이 정식으로 “보도 한 것이라면 주어진 번역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대학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밝히는 정도의 의미라면 (15b)의 해석이 적절할 것이고, 그 경우에는 “report 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건이나 행위에 가깝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고가 있다 정도로 주어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report 란 동사의 행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의 (11)에서 살펴보았던 “cast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재의미역(existential theta-role) 정도를 가지는 “report 를 주어로 선택한 것이다.

셋째, 김은일 외는 무생물 주어와 유생물 목적어가 함께 있을 경우 번역문에서 유생물 목적어를 주어로 선택한다고 지적한다. 김은일 외(33)에서 인용한 다음 예문들을 보자.

- (16) a. It [=volunteering] makes a young person feel mature and in control.
 b.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성숙하고 통제력을 지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RD 82:79)
 (17) a. His words made me feel strangely protective.

- b. 남편의 말을 들은 나는 이상하게도 그 일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RD 112)

위 (16-17)에서는 인간목적어가 모두 번역문의 주어로 격상되고, 무생물주어는 부사구나 관형절로 전환되어있다. 김은일 외에서 조사된 52개 문장 중 인간 목적어를 가진 문장은 9개, 무생물 목적어를 가진 문장은 32개이다.

이 문장들을 조사한 후, 필자들은 무생물 주어의 유지나 변경이냐를 결정하는 요인을 타동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을 보자.

- (18) a. The force of his fall jammed the boy deep into the crevice.
 b. 낙하하는 힘에 의해 소년은 바위틈에 깊이 끼여 있었다. (RD 118)
- (19) a. The toy house touched me only because it had been the last Santa Claus item Norman and I had made with our own hands and put under the tree together.
 b. 그 인형의 집이 내 마음을 울린 이유는 그게 바로 나와 노먼이 마지막으로 손수 만들어서 산타클로스에게서 온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은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RD 10)

위 (18-19)와 관련하여 김은일 외(35)는 “타동구문의 타동성이 강한 경우에는 무생물 주어 대신에 새로운 인간 주어를 선택하여 번역을 하는 반면(18b), 타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무생물 주어가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19b) 고 주장한다. 영어동사 “jam 과 “touch 가 어떤 의미에서 타동성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필자들은 아마도 “jam 은 물리적인,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는 반면, “touch 는 심리적인 변화는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타동성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변화가 정신적인 것보다 타동성이 더 높다는 주장 자체는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왜 주어 선택에서 다른 차이를 초래하는지는 직접적인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3절에서 우리는 논항구조의 차이가 주어 선택상의 차이를 초래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넷째, 김은일 외는 인간 참여자 혹은 행위자가 암시된 기관이 소유주와 전치사구로 나타난 경우 모두 인간 참여자가 새로운 주어로 번역되고 있음을 밝

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0) a. NBC news pays my salary, but I feel as I work for the viewers, helping them make sense of the world.
 b. [∅(=나는)] NBC뉴스를 진행함으로써 봉급을 받고 있지만, 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RD 96)
- (21) a. The Amber Alert's success has generated inquiries from police departments around the country and in Canada.
 b. 앰버경고의 성공적인 결과가 알려지자 미국 전역과 캐나다의 각 지 경찰당국이 문의하고 있다. (RD 36)

(20)에서는 인간 소유주 my가 번역문에서는 비록 생략되었지만 새로운 주어로 격상되었고, (21)에서는 전치사구의 인간 행위자 기관인 “police”가 주어로 격상되었다. 위 두 문장은 마치 무생물 주어가 강등되고 인간주어를 선택함으로써 유생성이라는 개념이 주어의 선택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김은일 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다음 예문들은 어떤 의미로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같지 않다.

- (22) a. Houses had large yards and some, like ours, even had small barns and large kitchen gardens, where we grew tomatoes, corn, watermelon and pole beans.
 b. 가정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고, 일부는 우리 집처럼 작은 헛간과 너른 텃밭을 갖고 있었다. 우리집은 텃밭에다 토마토와 옥수수, 수박과 완두콩을 길렀다. (RD 114)

문장 (22a)는 무생물 주어와 무생물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어 번역문에는 무생물 목적어가 새로운 주어로 선택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문장이 어떤 의미에서 유생성 논의와 관계가 되는 것인지, 또 유생성이 우리말 번역에서 주어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김은일 외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문장들이 모두 논항구조와 논항의 위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3절에서 보일 것이다.

다섯째, 김은일 외에서는 무생물 주어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을 분석하면서 16개 문장 중 3개는 타동사구문으로, 13개는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무생물 주어가 유지된 채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 (23) a. Tree roots prevented erosion and silting, keeping spawning pools well oxygenated.
 b. 나무뿌리가 흩이 쓸려나가는 것을 막았고, 물고기가 알을 낳는 웅덩이에 산소를 공급했다. (RD 42)
- (24) a. Life sometimes demands more patience than you can bear.
 b. 삶은 때때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걸 말이다. (RD 32)

(23)에 대해 필자들은 “동사 prevent(막다)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일으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사건을 저지하는 의미로 한국어에서도 ‘댐이 물을 막고 있다’ 처럼 무생물 주어 가능하므로 무생물 주어 유지된 채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 (37)고 주장하고 있다. 수동적으로 사건을 저지하는 의미의 경우에 무생물 주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할 수 없고, 더욱이 이러한 주장이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 선택에 대한 유생성의 영향과 어떠한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또 필자들은 (24)에 대해 “피동작주의 가시적인 변화도 없고, 사건의 시작과 끝의 경계도 불분명하며 빠르게 변화하지도 않는다 (37)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 그대로 번역문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러한 설명이 타동성이 낮은 경우 한국어에서도 무생물 주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필자들은 이 말을 유생성이 낮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필자들이 요약 부분에 가서 “무생물 목적어 구문의 주어 번역문에서 유지되는 경우는 유생성이 매우 낮아서 한국어에서도 무생물 주어 구문이 허용될 때는 타동사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생성이 주어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위 예문에서 보듯이 prevent와 같은) “동사의 속성 이란 말인가? 이러한 주장은 자체 모순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유생물을 주어로 삼고 무생물 주어를 가능하면 유생물 주어로 바꾼다는 것이 김은일 외

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유생성이 낮아서 무생물 주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혼란이 유생성을 논항위계의 행위자성(agentivity)과 혼동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무생물 주어가 유지된 채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25) a. Fear gave way to determination.

b. 마음을 다져먹자 두려움도 사라졌다. (RD 22)

(26) a. From London, five packets hit the road.

b. 런던에서 다섯 개의 패킷이 전송되었다. (RD 106)

김은일 외는 예문 (24-25)처럼 무생물 주어가 유지되지만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된 10개 문장은 모두 관용적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다만 무생물 주어가 유지되면서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된 문장들이 모두 관용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관찰을 했지만, 도대체 관용적 표현이라는 특성이 유생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무생물 목적어 구문의 무생물 주어가 번역문에서 유지되는 경우는 “유생성이 매우 낮아서 한국어에서도 무생물 주어 구문이 허용될 때는 자동사구문으로, 관용적인 표현일 때는 원래 주어를 유지한 채 자동사구문으로 번역된다고 주장한다.

3. 논항구조와 행위자성(Agentivity)

지금까지 김은일 외에 제시된 자료들을 유생성이란 관점에서 재검토해보았다. 일부 자료들은 유생성과 전혀 상관없이 무생물 주어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무생물 주어가 무생물 목적어로 대치되기도 했으며, 또 어떤 경우는 유생물 목적어가 번역문에서 무생물 주어를 대치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유생성이 높은 요소가 주어가 되는 경향이 있고, 유생성이 낮은 즉 무생물 주어가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일부

자료들의 분석에 있어서 필자들은 유생성이 너무 낮아 무생물 주어가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유생성의 영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절에서는 논항구조와 행위자성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앞 절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먼저 주어로 실현되는 의미역들은 다음과 같은 위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Grimshaw 1990).

(27) Hierarchy of arguments

agent > theme > experiencer > locative > source

(27)의 논항위계는 문장의 주어로 실현되는 의미역들의 위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행위자(agent)가 능동문의 주어로 가장 잘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피험자(theme), 그 다음으로 경험자(experiencer) 등의 순서를 가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논항의 위계를 받아들인다면, 행위자성(agentivity)이 한국어 문장의 주어 선택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왜 유생물이 주어로 선호되는가?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무생물에 비해 유생물이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행위자성이란 개념이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가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까지 김은일 외에서 다루어진 많은 경우들에서 원문의 무생물주어가 부사구로 강등되고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무생물 목적어가 새로운 주어로 선택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설에 따라 제시된 자료들을 재검토해보자. 먼저 다음을 보자.

(28) John broke his arm.

문장 (28)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 (29) a. John이 팔을 부러뜨렸다.
b. John은 팔이 부러졌다.

즉 주어인 *John*이 행위자(agent)인가 아닌가에 따라 원문의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29a)처럼 주어로 나타날 수도 있고, (29b)처럼 화제화 될 수도 있다. 특히 (29b)는 이 문장에서 *John*이 행위자가 아니고 사건을 겪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John*을 주어로 번역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유생물 주어라 하더라도 행위자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점은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 (30) a. John이 고의로*사골 팔을 부러뜨렸다.
- b. John은 사고로*고의로 팔이 부러졌다.

위 (30a)에서 보듯이 행위자성이 두드러질 때는 “고의로 와 같이 의도(volition)를 나타내는 부사가 자연스럽지만, 행위자성을 배제하는 “사고로 와 같은 부사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반대로 (30b)에서 보다시피, 행위자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고로 와 같은 부사가 자연스럽지만, 의도를 나타내는 “고의로 와 같은 부사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앞의 (7)에서 보았듯이 (아래 (31)로 되풀이), 원문의 무생물 주어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적지 않은 수가 다른 주어로 변경되고 있다. 즉 무생물 주어 52개 중 29개는 그대로 유지된 반면, 23개는 다른 주어로 바뀐 것이다.

(31) 주어 유지/변경에 있어서 생물주어와 무생물주어의 비교

	생물주어	무생물주어
주어유지	5개(96.2%)	29개(55.8%)
주어변경	2개(3.8%)	23개(44.2%)
합계	52개(100%)	52개(100%)

우리는 그 이유를 행위자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무생물 주어의 경우는 대부분이 행위자성이 낮고, 따라서 의미관계를 재분석한 후 위 (27)의 논항위계에 따라 적절한 주어를 찾는 과정이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은일 외에서 다루어진 예문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32) 생물주어가 유지된 경우

- a. For every book report a child wrote, he received a raffle ticket.
 b. 독후감을 쓸 때마다 아이는 경품 추첨권을 받았다. (RD 70)

예문 (32)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행위자성이 높은 유생물 즉 인간 주어가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우연히도 행위자성과 유생성이 일치하고 있어서 마치 유생성이 번역문의 주어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다.

(33) 생물주어가 무생물주어로 바뀐 경우

- a.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students caught cheating get an XF for the course on their transcript.
 b. 메릴랜드대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수강과목에 대해 XF라는 학점을 성적표에 기재한다. (RD 85:52)

예문 (33)은 김은일 외에서 “메릴랜드대학교에서는 을 주어라고 잘못 지칭하고 있다. “메릴랜드대학교에서는 은 통사적 주어가 아니라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이며, “기재한다 라는 동사의 주어는 학교의 당국자 혹은 선생님이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예문 (10)=아래 예문 (34)), 생략된 주어를 복구해도 문장이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어가 틀림없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4) 메릴랜드대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부정행위를 한 수강과목에 대해 XF라는 학점을 성적표에 기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원래 인간 주어인 *students*를 번역문에서 그대로 주어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생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인간 주어인 *students*를 주어로 하는 것이 (“인간행위자를 암시하는) 기관을 주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런데도 학교당국자를 주어로 하여 생략한 것은 이 생략된 주어가 훨씬 더 행위자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적을 주거나 기재하는 행위와 성적을 받는 행위를 비교해보면, 성적을 주는 행위자의 행위

자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당국자 혹은 선생님을 주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번엔 무생물 주어가 유지된 다음의 경우를 재검토해보자.

(34) 무생물주어가 유지된 경우

- a. Local TV stations began broadcasting Amber Alerts two years later.
- b. 지방 TV방송국은 2년 뒤부터 엠버경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RD 85:32)

위 문장의 주어인 지방 TV방송국을 행위의 주체로 보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 문장에서 지방 TV방송국이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어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색할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순수하게 무생물인 주어를 번역문에서 그대로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유사한 경우를 비교해보자. 무인우주선이 우주공간에서 신호를 내보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 우주선이 인간 행위자를 암시한다고 가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인우주선이 순전히 기계적 능력으로 신호를 내보냈다고 해야 하는가? 우리는 후자가 사실에 더 가깝다고 본다.

다음으로 무생물 주어가 생물 주어로 바뀐 경우를 보자.

(35) a. The Amber Alert's success has generated inquiries from police departments around the country and in Canada.

- b. 엠버경고의 성공적인 결과가 알려지자 미국 전역과 캐나다의 각지 경찰당국이 문의하고 있다. (RD 85:36)

유생성이 아니라 행위자성을 검토해볼 때, 위 (35)에서 *success*는 어떠한 기준으로 행위자가 될 수 없다. 혹시라도 어떤 행위가 있어서 그 주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police departments*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에서는 행위자를 주어로 한 (35b)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김은일 외(29)는 (35b)와 관련하여 “인간 행위자가 암시되는 기관의 경우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경찰당국은 “인간 행위자가 암시되는 기관이 아

니라 그 자체가 인간이자 동시에 행위자이다. 인간 행위자는 언제나 동일개념은 아니다. 인간 주어지만 행위자가 아닌 경우를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무생물 행위자도 행위자이기만 하면 한국어 번역에서 주어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김은일 외에서는 인간 행위자가 암시되는 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무생물 주어를 회피하기 위해 동사를 변경하고 다른 주어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 (36) a. Then January cast a shadow on little Sam's life.
 b. 그러던 중 1월이 되어 어린 샘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 (RD 120)

예문 (36)과 관련하여, 김은일 외는 무생물 주어인 *January*가 타동사구문의 주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문에서는 부사구인 “1월이 되어 로 번역되고, 동사의 변경과 함께 새로운 주어인 “그림자 가 선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너무 단선적으로 보인다. 한국어 번역문에서 주어의 선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응집(cohesion)과 일관성(coherence)이라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배경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도 고려해야 한다. 위 (36)이 *Sam's life*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January*에 관한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만일 *January*에 관한 문장이었다면, 이 문장은 한국어 번역문에서 1월은이란 주어를 사용해도 자연스러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문장에는 생물 주어가 없기 때문에 생물 주어를 선택할 수는 없다. 김은일 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문장의 주어 선택이 유생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 기존의 무생물 주어를 무시하고 새로운 무생물 주어를 선택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유생성은 이 번역문의 주어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36)에서 *cast*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유적 표현으로 아무런 행위(activity)나 사건(event)이 없다. *January*는 단순히 시점을 밝혀줄 뿐이고, *Sam's life*는 처소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장의 핵심적 의미역은 *a shadow*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미역 밖에 없다. 따라서 번역문에서는 존재의미역을 가지고 있는 *a shadow*가 주어로 선택되었고, 동사 역시 드

리우다라는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번역문은 유생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문장의 (의도된) 의미와 의미역을 고려할 때, 가장 두드러진 의미역이 주어로 선택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제 무생물 주어가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주어로 유지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김은일 외(30)는 “바람, 태양, 구름 등과 같은 자연도 비록 인간 행위자보다는 덜 전형적이지만 행위자로 역할을 하여 타동사의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보자.

- (37) a. The clouds had covered the sky completely, and the wind swept the blowing powder hard against me until it began to freeze to my face.
- b. 구름은 이미 하늘을 완전히 가렸고, 바람에 날린 눈발이 사정없이 휘몰아쳐서 마침내 얼굴엔 눈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RD 83:12)

이러한 관찰은 유생성이 아니라 행위자성이 번역문 주어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37)에서 구름이 유생물이나 무생물이나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늘을 완전히 가리는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문에서 충분히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 예문에서 “눈발이 도 마찬가지로이다.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사건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주어로 선택된 것이다.

김은일 외(31)에서 기계와 기관이 모두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그대로 주어로 유지된다고 주장했던 예들도 사실은 모두 행위자성이 충분히 주어로서의 자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주어로 선택된 것이다.

- (38) 기계 주어가 번역문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
 - a. At dusk a Department of Public Safety helicopter spotted the Dykstras but could not get past the surrounding treetops to help them.
 - b. 땅거미가 질 무렵 공안부소속 헬리콥터가 그들을 찾아냈지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높은 나무들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RD 84:52)

- (39) 기관 주어가 번역문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

- a.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offered \$50,000...
- b. 캘리포니아 주정부 어류 및 조수관리국이 5만 달러를 내기로 하고... (RD 83:48)

위 (38-39)에서 보듯이, 기계나 기관을 굳이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기 때문에 타동사 구문의 주어로 유지된 채 번역되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유생성이 주어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번역문의 주어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행위자가 암시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 즉 행위자성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들 기계나 기관이 인간 행위자를 암시한다는 주장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하지 않다. 가령 (38)의 헬리콥터가 무인헬리콥터라고 가정해보자. 컴퓨터 등 고도의 장비를 갖춘 무인 헬리콥터가 사람을 찾아냈을 경우에도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전히 무생물 주어 헬리콥터가 유지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든 암시하지 않든 상관없이, 행위자성이 보장되면 무생물 주어는 우리말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다. 다음 예문에서는 오히려 인간 행위자를 암시하는 기관인 대학이 우리말 번역에서 그대로 주어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사구로 처리되고 있다.

- (40) a. In recent years many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reported a surge in plagiarism, unauthorized collusion on assignments and cheating on tests.
- b.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표절을 하거나, 과제물을 여럿이 함께 한다든지, 시험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RD 85:42)

위 (40)의 경우 김은일 외에서도 밝혔듯이, 번역자가 “대학 을 주어로 번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유생성과는 상관없이 없고, 책임 소재나 정보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우리의 문화 정서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보고 를 주어로 선택했다고 판단한다. 다시 한 번 되풀이하지만, 유생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장인 것이다.

이 문장이 만일 대학들이 정식으로 “보도 한 것이라면 주어진 번역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학*을 주어로 하는 번역이 적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학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밝히는 정도의 의미라면 (40b)의 해석이 적절할 것이고, 그 경우에는 *report*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건이나 행위에 가깝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고가 있다* 정도로 주어를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음으로 무생물 주어와 유생물 목적어가 함께 있을 경우 번역문에서 유생물 목적어를 주어로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 (41) a. It [=volunteering] makes a young person feel mature and in control.
- b.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성숙하고 통제력을 지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RD 82:79)
- (42) a. His words made me feel strangely protective.
- b. 남편의 말을 들은 나는 이상하게도 그 일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RD 82:112)
- (43) a. The force of his fall jammed the boy deep into the crevice.
- b. 낙하하는 힘에 의해 소년은 바위틈에 깊이 끼여 있었다. (RD 85:118)

위 (41-43)에서는 인간 목적어가 모두 번역문의 주어로 격상되고, 무생물 주어는 부사구나 관형절로 전환되어있다. 영어 원문의 주어는 의미역 위계에서 볼 때, 출처(source)에 해당하고 목적어가 경험자(experiencer)이다. 경험자가 출처보다 위계가 높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에서는 경험자가 주어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래 문장들도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 (44) a. The toy house touched me only because it had been the last Santa Claus item Norman and I had made with our own hands and put under the tree together.
- b. 그 인형의 집이 내 마음을 울린 이유는 그게 바로 나와 노먼이 마지막으로 손수 만들어서 산타클로스에게서 온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은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RD 82:10)

김은일 외(35)는 “타동구문의 타동성이 강한 경우에는 무생물 주어 대신에 새로운 인간 주어를 선택하여 번역을 하는 반면, 타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무생물 주어가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영어동사 *jam*은 타동성이 높고, *touch*는 타동성이 낮기 때문에, *jam*의 경우에는 주어를 인간 주어를 선택하고, *touch*의 경우에는 무생물 주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은일 외에서는 타동성이 높고 낮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jam*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는 반면, *touch*는 심리적인 변화는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는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타동성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이러한 판단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문장에서는 원문의 주어가 행위자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번역문에서도 주어로 선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 참여자 혹은 행위자가 암시된 기관이 소유주와 전치사구로 나타난 경우 번역문의 주어가 어떻게 선택되는지 살펴보자.

- (45) a. NBC news pays my salary, but I feel as I work for the viewers, helping them make sense of the world.
 b. [Ø(=나는)] NBC뉴스를 진행함으로써 봉급을 받고 있지만, 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RD 82:96)

(45)에서는 인간 소유주 *my*가 번역문에서는 비록 생략되었지만 새로운 주어로 격상되었다. 이 문장은 마치 무생물 주어가 강등되고 인간주어를 선택함으로써 유생성이라는 개념이 주어의 선택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김은일 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NBC news*가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but*-절 이하를 보면 주어가 *I*이다. 행위자성이라는 요인과 대등절의 주어일치라는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번역문에서는 주어가 “나 로 선택된 것이다.

- (46) a. Houses had large yards and some, like ours, even had small barns and large kitchen gardens, where we grew tomatoes, corn, watermelon and pole beans.

- b. 가정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고, 일부는 우리 집처럼 작은 헛간과 너른 텃밭을 갖고 있었다. 우리 집은 텃밭에다 토마토와 옥수수, 수박과 완두콩을 길렀다. (RD 83:114)

유생성이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면, 위 (46)에서 굳이 무생물 주어를 무생물 목적어로 대체할 이유는 없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에서 유생성 논의와 관계가 되는 것인지, 또 유생성이 우리말 번역에서 주어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김은일 외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알 수 없다. 영어동사 “have 는 행위자가 아니라 존재의미역만을 부여한다. *houses*는 처소격에 해당하고 오히려 목적어가 존재의미역을 가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어뿐 아니라 많은 다른 언어에서도 목적어가 주어로 나타나는 일이 흔하다.

마지막으로 무생물 주어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 (47) a. *Tree roots prevented erosion and silting, keeping spawning pools well oxygenated.*
 b. 나무뿌리가 흩이 쓸려나가는 것을 막았고, 물고기가 알을 낳는 웅덩이에 산소를 공급했다. (RD 83:42)
- (48) a. *Life sometimes demands more patience than you can bear.*
 b. 삶은 때때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걸 말이다. (RD 84:32)

(47)에 대해 김은일 외(37)에서는 “동사 *prevent*(막다)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일으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사건을 저지하는 의미로 한국어에서도 ‘댐이 물을 막고 있다’처럼 무생물 주어가 가능하므로 무생물 주어가 유지된 채 타동사구문으로 번역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동적으로 사건을 저지하는 의미의 경우에 무생물 주어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검증할 수 없고, 더욱이 이러한 주장이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 선택에 대한 유생성의 영향과 어떠한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김은일 외(37)는 또 (48)에 대해 “피동작주의 가시적인 변화도 없고, 사건의 시작과 끝의 경계도 불분명하며 빠르게 변화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

가 그대로 번역문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이러한 설명이 타당성이 낮은 경우 한국어에서도 무생물 주어 가능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만일 “땀이 물을 막고 있다 와 같은 문장을 들어 한국어에서도 무생물 주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지금까지 김은일 외에서 제기된 주장은 모순에 빠지게 된다. 무생물 주어도 가능하고, 유생물 주어도 가능하다면, 한국어는 영어와 전혀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은일 외는 이 말을 유생성이 낮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무생물 목적어 구문의 주어 번역문에서 유지되는 경우는 유생성이 매우 낮아서 한국어에서도 무생물 주어 구문이 허용될 때는 타동사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논리적 모순은 유생성이 주어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동사의 속성이 되는데, 이 전의 예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47)과 같은 경우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 되고 만다.

행위자성은 참여자들의 상호관계와 동사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생성이란 명사 자체의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유생성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것은 최초의 유생성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한국어는 일반적으로 유생물을 주어로 삼고 무생물 주어를 가능하면 유생물 주어로 바꾼다는 것이 김은일 외의 주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유생성이 낮아서 무생물 주어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혼란이 유생성을 논항위계의 행위자성(agentivity)과 혼동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 (47-48)에서 두 주어는 행위자성이 높기 때문에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주어로 선택된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김은일 외의 논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영어 번역에서의 주어의 선택은 유생성이 아니라 행위자성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의 앞 부분에서는 먼저 김은일 외의 논문 내용을 요약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주어의 선택과

관련해서 김은일 외는 유생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무생물 주어보다는 유생물주어가 선호되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Reader's Digest* (2006-2007) 6권을 대상으로 약 104개의 문장을 분석한 결과, 유생물 주어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대개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무생물 주어는 29개가 그대로 유지된 반면, 23개는 다른 주어로 대체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주어가 바뀐 문장들을 재검토한 결과 많은 경우 유생성과는 상관없이 무생물 주어가 다른 무생물 주어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즉 유생성과 전혀 상관없이 무생물 주어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무생물 주어가 무생물 목적어로 대체되기도 했으며, 또 어떤 경우는 유생물 목적어가 번역문에서 무생물 주어를 대체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유생성이 높은 요소가 주어가 되는 경향이 있고, 유생성이 낮은, 즉 무생물 주어가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김은일 외에서는 특정한 경우 유생성이 너무 낮아 무생물 주어가 한국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상호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와 행위자성(agentivity)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앞 절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논항구조의 의미역 위계는 “행위자>피험자>경험자>처소>출처 와 같은 순서로 주어로 실현되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행위자(agent)가 능동문의 주어로 가장 잘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피험자(theme), 그 다음으로 경험자(experiencer) 등의 순서를 가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논항의 위계를 받아들인다면, 행위자성(agentivity)이 한국어 문장의 주어 선택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서 왜 유생물이 주어로 선호되는가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였다.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무생물에 비해 유생물이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행위자성이란 개념이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가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까지 김은일 외에서 다루어진 많은 경우들에서 원문의 무생물 주어가 부사구로 강등되고 번역문에서는 원문의 무생물 목적어가 새로운 주어로 선택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 논문은 유생성이 아니라 행위자성이 한국어 번역문에서의 주어의 선택을 결정하는 주 요인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김은일 외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들, 즉 영어 원문의 무생물 주어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다른 무생물 주어로 대체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행위자성이 높은 요소가 그렇지 못한 주어를 대신해서 번역문의 새로운 주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유생물 주어가 대개의 경우 번역문에서도 주어로 유지되는 경우가 흔한 것도 해당 주어들이 행위자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은일. 1998. 「영어구사력 향상을 위한 한영구조에 나타난 유생성 차이에 관한 비교연구」. 『영어교육연구』 9, 145-154.
- _____. 2000. 「유생성의 문법」. 『현대문법연구』 20, 71-93.
- 김은일 · 김명애 · 정연창. 2009. 「유생성이 영 · 한 번역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 16.1, 23-40.
- 이영옥. 2001. 「무생물주어 타동사구문의 영 · 한 번역」. 『번역학연구』 2.1, 64-65.
- Croft, W.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se, D.A. 1973. "Some thoughts on agen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9, 11-23.
- Givón, T. 1993.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vol. 1. Amsterdam: John Benjamins.
- _____. 2001. *Syntax: An introduction* vol. I & II. Amsterdam: John Benjamins.
- Hopper, P.J. and S. A.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251-299.
- Taylor, J.R. 1990.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Yamamoto, M. 1999. *Animacy and ref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Abstract]

Selection of the Subject of Sentences in English-to-Korean Translation and Agentivity

Jang, Youngju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Kim, Kim & Jung (2009) and propose an alternative account for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of a sentence in translating English into Korean. Although being sympathetic with their proposal about the animacy effects in translating English into Korean, we are strongly suspicious of the status of animacy and the role that they claim it plays. Instead, we argue that it is not exactly the animacy tha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in Korean translation is affected. It has, instead, been shown that various extra factors such as agentivity, argument structure, and argument hierarchy are in operation in selecting the subject of a sentence in English-to-Korean translation. We apply the notion of agentivity to each problematic sentences discussed in Kim, Kim & Jung (2009) and finely accounted for the subject selection.

▶ Key Words: animacy, agentivity, argument structure, transitivity, translation

장영준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yjang@cau.ac.kr

관심분야: 대중교양 및 전문서 번역, 번역학 이론

논문투고일: 2009년 4월 23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2일